메트로 2013년 9월 2일 월요일

Sports p/22

3안타 2득점 '만점 추신수'

가을 속으로 빠져볼까 제8회 제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한 패러글라이더가 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활공장을 출발, 청풍호를 날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광대역 'LTE 3차대전'

'주파수 전쟁 승자' KT 선전포고… SKT는 LTE-A 주력 속 광대역화 추진

LTE보다 2배 이상 빠른 LTE-A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속도 경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격자인 KT가 통신 서비스 박빙을 재현한다.

KT는 지난달 30일 LTE 주파수 할당에서 1.8㎓ 인접 대역 주파수를 차지하면서 국내 이동사 가운데 최초로 광대역 LTE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광대역 LTE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 LTE-A와 달리 기존 LTE 단말기로도 LTE-A급 통신 속도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LTE-A는 잠바른 알뜰이 교체해야 하지만 광대역 LTE는 이미 쓰던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는 개념인 만큼 망 구축이 쉽다.

LTE에 이어 LTE-A에서도 막차를 타는 KT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경쟁사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다.

이러한 비전에 고무된 이석채 KT 회장은 1일 임직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혁신의 용사들을 전면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했고 책임경영제도 도입했다. 현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 제원을 모으고 단력적인 전용을 갖춰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표현명 텔레콤&컨버전스(T&C) 부문 사장은 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광대역의 일정과 고객 서비스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커버리지에 시간이 걸린다는 장애물이 있다. 새 주파수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업계 선두 SK텔레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으로 1.8㎓ 대역에서 새로운 35㎒ 블록을 확보했다. KT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LTE-A와 광대역 LTE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기호나 각 서비스의 투자·운영 비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현재 단말기 제조사들이 LTE-A 전용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SK텔레콤에 유리한 부분이다.

때마침 추석을 전후로 삼성의 갤럭시노트3, 애플의 아이폰5S, LG의 뷰3와 같은 첨단 스마트폰이 등장하는데 이들 제품 역시 LTE-A 전용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싱글LTE 집중

LG유플러스는 LTE-A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기존에 쓰지 않던 2.6㎓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당분간 광대역 LTE망 구축이 어렵다.

다만 이 회사는 LTE의 순도를 따지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통화까지 LTE망을 사용하는 싱글 LTE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의 경우 음성통화는 3G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KT의 광대역 LTE,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A로 통신 서비스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LTE 단말기를 계속 쓰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KT의 가세가 반가운 뉴스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공기업도 채용 줄였다

하반기 26%↓ 대기업 공채 경쟁률 치솟을듯

은행·증권 중소기업에 이어 공기업 채용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채용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유일하게 채용규모를 늘린 대기업 공채 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공기업들이 발표한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30개 공기업의 올 하반기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1197~12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인 1641명보다 26%나 줄어든 수치다. 공기업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상반기에 앞당겨 채용 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곳은 아예 채용계획 없어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는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등 16곳으로 지난해의 10곳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수력원자력(207→150명), 한국중부발전(97→6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0→15명) 등은 채용 규모를 크게 줄였다.

다만 사업 다각화에 나선 한국전력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164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늘렸다. 한국광물자원공사(28→70명), 한국동서발전(79→105~110명), 한국석유공사(60→70명), 한국수자원공사(191→200명) 등의 채용 규모도 소폭 늘어났다.

이보다 앞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7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777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36.6%만이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 은행의 공채 규모도 2722명으로 지난해보다 1036명(27.6%)이나 적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전체 채용 규모의 과반수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열린 채용 확대 등 채용 트렌드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정기자 kim.ss@

잠깐만! 메트로 포토 캠페인

"자전거는 주말·공휴일에만 타우세요" 지하철에 자전거 승차가 가능한 경우는 주말과 공휴일뿐이다.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는 다른 승객들의 이동에 방해가 된다. 주말 나들이할 때만 자전거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이제는 자하철 상식이다. /서울메트로 제공

등록금 1위 을지대 852만원<교육비 1위 우촌유치원 1601만원

'사립대 2배' 유치원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교육비가 630만여 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연간 유치원 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곳은 4년제 대학 등록금 최고액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전국 8559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일 이같이 밝혔다.

사립 유치원 월 교육비 12개월치와 입학 경비를 합한 연간 사립 유치원비는 만 3세 635만6524원, 4세 634만1620원, 5세 632만6220원이었다.

지난해 9월 공시된 사립 유치원 연간 비용(543만7720원)과 비교하면 22.8% 인상됐다.

사립 유치원비는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올해 2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4년제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409만6000만원이었다. 이는 4년제 사립대(733만9000원) 연평균 등록금에는 못 미쳤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667만8000원)과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립 유치원 중 연간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 우촌 유치원으로 16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양여대부속유치원 1253만원, 의명유치원 1245만원, 경남대부설유치원 1227만원, 프라임유치원 1206만원, 기린유치원 1170만원, 고은유치원 1166만원, 계리아유치원 1154만원, 김종원키드빌리지유치원 1136만원, 유정유치원 1114만원 등 순이었다. 이들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을지대 등록금(852만1400원)보다 높았다.

/이승연기자

요즘 선선해도… 서울 가을 26일부터

2000년 이후 서울의 가을 시작일이 30여 년 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기상청은 1971~2010년 서울의 계절 시작일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서울 가을 시작일은 1970년대에 비해 7일 늦은 9월 26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 30년 전보다 1주일 늦어져

가을 시작일은 일 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유지되는 첫날을 말한다. 가을 시작일은 1970년대 9월 18일, 1980년대 9월 21일, 1990년대 9월 22일 등 점차 늦어졌다.

가을이 늦게 시작되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서울의 9월 평균기온은 꾸준히 높아져 100년 동안 2.0도가 상승했다.

기상청은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서울 평균기온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4일 강서구 취업박람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4일 오후 2시부터 화곡6동 소재 KBS 88체육관에서 '2013 강서구 희망 취업 박람회'를 연다.

제조·판매·용역·경비 등 업체 30여 곳이 참여하며 채용 예정 인원은 총 400여 명이다.

방송대, 고교생 진로 콘서트

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하이텍고에서 가수 김태원과 개그맨 정대호를 강연자로 초청, 진로 콘서트 '포인터지다'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약 600여 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

당기 흔드는 김한길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년 만에 당사를 여의도 대산빌딩으로 옮긴 후 1일 입주식에서 새로운 당 상징색과 로고로 만들어진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랑' 민주당

당 상징색 깜짝 변경
당사도 여의도 이전

민주당이 1일 9년 만에 당사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전하고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의 여의도 당사 시대는 2004년 3월 영등포 당사로 옮긴 지 9년 만이다. 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 된 것은 민주당의 6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맞은편인 대산빌딩에서 새 당사 입주식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새 상징은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가겠다는 약속과 서민·중산층의 벗이 되겠다는 다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나침반이 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며 당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민준기자

흡연율 못 낮추는 금연정책

2007년 이후 제자리—학력·소득수준과 반비례

음식점 흡연 금기 등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에도 흡연율이 200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남자 47.3%, 여자 6.8%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성인 흡연율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계층 간 흡연율 격차가 여전히 심각했다.

소득을 상·중상·중하·하 4단계로 나눴을 때 상위 집단 남자 흡연율은 43.2%, 하위 집단은 52.9%로 9.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자는 각각 3.7%, 10.5%로 조사돼 6.8%포인트 차이가 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 남자 흡연율이 47.0%로 평균과 비슷했지만 초졸 이하 학력 남자는 53.4%로 조사됐다.

여성은 이와 반대로 대졸 이상 흡연율이 13.4%로 초졸 이하 흡연율 2.4%보다 높았다. 학력 간 격차는 남자보다 컸다.

/김유리기자

노조간부 또 '배상금 폭탄'

법원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회사 피해"… 지난달 1억 이어 두번째 판결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 2명이 또다시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다른 노조 간부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후 한 달 만이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현대차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 특근 방식에 합의했으나 해당 간부 2명이 반발하며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2조가 차량 390대를 만들지 못해 54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같은 법원은 앞서 지난달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에 대한 손배 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병국기자 ssa7000@metroseoul.co.kr

"미리 인사 왔습니다" 추석을 20여 일 앞둔 1일 성묘객들이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묘지에서 성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동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9월 1일부로 열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에는 열요금을 4.9% 인상했으나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 연료비 변동분을 매년 4차례(3·6·9·12월) 열요금에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과 온수를 대단위 지역 아파트, 업무용 건물, 공공기관 등에 일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도기기자

오륙도·이기대 이야기책 나왔다

남구 주요 관광지 담아

부산시 남구청(구청장 이종철)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남구청은 남구지역 스토리텔링을 모아 '부산 남구의 특별한 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126쪽 분량의 이 책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일간지 국제신문 '이야기 공작소'를 통해 연재된 내용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오륙도와 이기대·신선대 등 남구의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스토리창작센터 육성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유엔기념공원 스토리텔링 이야기도 담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발굴,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용품 IT융합 전동복지기기 전시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인 동남권 IT 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성대학교 고령친화 이지라이프 RIS사업단(사업단장 연진우)은 제6회 고령친화용품 및 IT융합 전동복지기기아이디어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전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실수요자인 고령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실용성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등생 및 대학생과 일반인 등 고령친화용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복지기기 분야,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 스마트폰용 앱 분야로 나누어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지(sel.ks.ac.kr) 참조.

3000명 이상 졸업 동의대 취업률 영남지역 대학 1위

동의대학교는 지난 29일 발표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 조사'에서 취업률 55%를 달성해 지난해와 동일한 전국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졸업자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영남지역 1위를 차지했다.

취업률은 유아교육학과 95%를 기록해 전국 67개교(평균 78%) 중 2위를, 독일어 문학 분야도 72.2%를 기록해 전국 52개교(50.5%)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영도 연안 힐링공간 조성

부산해항청 정비사업 설계용역 착수…358억 들여 내년 6월 완공

파도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 영도구 연안이 정비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침수나 연안 침식 같은 피해를 겪던 부산항의 관문인 영도 동삼지구 일대에 재해방지·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8억4100만원을 들여 동삼매립사직지 침식 구간 호안 정비 240m, 중리지구 연안침식 방지시설 70m, 조도 진입로 월파방지시설 100m, 조도 연안 침식 방지 호안 560m, 조도 안전시설 910m와 한국해양대 앞 월파방지시설 300m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해항청은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해 내년 6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도 동삼지구는 열악한 상태로 연안이 관리되고 있어 자연재난인 태풍, 고파랑이 내습할 때에는 월파로 인한 침수 피해와 연안 침식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영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 힐링(healing) 공간이 조성돼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영도지역을 찾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시농업학교 뜨거운 인기 해운대구 반송1동 주민센터와 부산도시농업포럼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반송 도시농업학교' 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30일 참가자들이 가을 배추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상자 텃밭에 거름흙을 채우고 있다. /해운대구 제공

광안리 무료 카약체험장 문연다

부산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설 무료 카약체험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부산해항청은 카약 100척, 진행안전선 4척 등 체험 장비를 구비해 하루 최대 600명, 연 인원 3만5000명의 시민이 연중 상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카약체험장을 9월 중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부산해항청은 광안리 카약체험장에 이어 해운대, 송도 등의 해역에도 카약체험장의 확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카약 체험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홈페이지(www.seik.or.kr)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이달 중순 시민접견실 설치

부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일일이 찾아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3층에 시민접견실을 설치,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서 접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3층 시민접견실은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실 3개, 개별실 10개가 마련됐다.

또 시민들의 청사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1~3층 구간에 시민 전용 승강기 2대를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과 사전 면담 예약도 가능하도록 해 시민 대기 시간 및 면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1~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해당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

해기사 취업박람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지난 31일 대강당에서 현대상선 등 22개 선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션폴리텍 해기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대학생에 시원장학금 시원무역 재단은 지난 29일 대선주조(주) 기장공장에서 2013년 '시원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지금까지 지역 학생 1,361명에게 8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의대학교
DONG EUI UNIVERSITY
[동의]가 이끌어 갑니다
www.deu.ac.kr

취업에 강한 동의대학교
영남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가' 그룹 – 졸업자 3,000명 이상)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4학년 1학기에
삼성전자 입사 확정
동의대학교를 대표하는 인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안성현, 신홍섭, 정상준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조해완, 오정학은
현재 4학년 재학 중이지만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입사가 확정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2013년도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5년간 최대 200억원 지원
수송기계 · IT융합부품, 지식기반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집중 투자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 5억 9천만원 지원
입학사정관제 전형 내실화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14학년도 모집안내
수시 1차 : 2013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수시 2차 : 2013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정 시 : 2013년 12월 19일(목) ~ 12월 23일(월)
▶원서접수(인터넷) http://ipsi.deu.ac.kr

가을 알리는 패션 스카프 30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7층 의류매장을 찾은 여성들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패션 스카프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9년 넘은 구급차 '퇴출'

시 복지부 입법예고에 실태조사…이송처치료 인상

최근 보건복지부가 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에 대해 더는 운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급차의 기준 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부산시가 직접 민간 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 규정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량 연령 제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는 27.5%에 달했다.

부산시의 경우 9년 이상인 민간 구급차는 20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낡고 장비와 응급구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급차를 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차령은 신설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등록·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할 방침이다.

단 자동차 검사 결과에 따라 운행 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8년간 물가 상승률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며 10㎞를 초과할 때마다 1㎞당 800원씩 붙던 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고 10㎞ 이상에 붙는 추가 이송료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간인 오전 0~4시에는 이송료에 20%가량 요금이 더 붙는다. /뉴시스

추석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은 추석을 맞아 내달 2~21일 민생 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산세관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을 통해 정상 화물은 수입 통관 때 보세구역 반입 및 수입 검사 대기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제를 유도하고 명백하게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이나 성필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의 과감한 생략으로 통관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전 신청 없이 긴급히 임시 개청, 선적 기간 연장 등을 전화나 구두로 요구할 때에도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 정상조업률 5개월 연속 하락세

7월 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83.5%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31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조사 대상 업체 1545곳 중 정상 조업 업체는 1290곳, 조업단축 업체는 전체의 15.4%인 238곳, 휴·폐업 업체는 17곳(1.1%)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가장 큰 조업 부진 요인으로 판매 부진(59.6%), 기타(11.4%), 수익성 악화(10.2%), 자금 부족(8.2%)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114 FAX (02)721-1551

발행·편집인	남궁 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전대	김윤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3-2100
독자센터	02)721-6011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1926.36 (+16.27)	517.74 (-3.63)
금리	**환율**
2.88 (-0.03)	1109.90 (-2.50)

뉴스 & 뉴스

4배 높은 체감 물가상승률

●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해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5.4%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 1.3%의 4.2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민지기자

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한국의 수출액이 463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8월 수입액은 지난해 8월보다 0.8% 증가한 414억4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9억1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김민지기자

"동남아 통화위기, 금값 폭등 부를수도"

신흥국 위기로 금값이 온스당 1만 달러까지 치솟는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켓워치가 지난달 31일 전한 소시에테제네랄(SG) 은행의 딜버트 에드워스 전략가의 최신 보고서는 "미국출구전략발 신흥국 통화 위기가 선진국에도 디플레 충격을 전이시키는 파국적 조정 국면이 되면 금값이 1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값은 지난 30일 뉴욕 시장에서 12월 선물이 온스당 16.80달러 하락해 1.3% 10달러에 마감됐다. /송병기기자

신흥국과 다른 한국? 뭘 믿고!

공기업·가계 '부채 뇌관' 등 · '美 출구' 인한 외인변심·금리상승 대비를

김현정기자가 만난 **금융가 사람들**

■ **하나금융 김완중 연구위원**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안에 양적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불안에 휩싸이며 크게 요동쳤다. 이들 국가에 대거 유입된 미국 양적완화 자금이 다시 미국 내로 회수될 경우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작용됐다.

김완중(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자금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면서 구조적으로 큰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며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계기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현재 금융시장이 부진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7~8월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다른 아시아 신흥국이나 중남미 신흥시장과 분명히 차별화된 시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제까지 이 같은 차별성이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증시 상황이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의 출구전략뿐만 아니라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장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미 출구전략에 따라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경우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와 주택 시장 침체가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차별성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측면"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 부채의 통계 수치(37%)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고려하고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부의 외채 규모를 발표할 때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80%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경우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의 투자 전략으로는 만기가 짧은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낫다고 조언했다.

/hjkim@metroseoul.co.kr

10대 그룹 양극화

상반기 영업익 4% 감소 속 삼성·LG·롯데만 '플러스'

삼성·LG·롯데를 제외한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상장사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24조35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조3969억원보다 4.1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증가한 12조3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재계 2~10위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12조185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LG그룹도 LG이노텍(112.8%), LG하우시스(150.7%), LG유플러스(316.3%)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지난해보다 26.6% 늘어난 1조76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롯데그룹 역시 97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9655억원에서 올해 4613억원으로 52.22% 줄었다.

한진그룹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1247억원에서 올해 2959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화, SK, 포스코그룹 영업이익 역시 각각 37.8%, 19.1%, 15.1% 줄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경영정상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명 변경… 글로벌한 새출발

희망 여는 SBI저축은행

이달부터 '서민 금융파트너'로 정도경영 앞장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9월 1일부터 사명을 'SBI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따라 계열 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2·3·4저축은행도 SBI 2·3·4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고 홈페이지 주소는 'www.sbisb.co.kr'으로 바뀐다.

SBI저축은행은 사명 변경을 통해 창조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획기적 상품 개발과 금융 상품의 제도·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글로벌 금융기업으로서 도약의 의지를 표명했다.

원칙과 기본, 고객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선언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생활 안정에 앞장서는 SBI저축은행이 되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SBI홀딩스의 2462억원 추가 증자를 포함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은 위 증자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희망금융 무이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20~50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3개월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3000명까지다.

SBI저축은행 홈페이지 접속과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지점 방문을 예약하면 가능하다.

SBI저축은행은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게 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이체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월급의 4배까지 대출해주는 페이데이론 신청도 가능하다.

/정단비기자 jdb@

깜찍해진 '올레 스마트 홈폰' KT는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첫 30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형태의 집전화 '올레 스마트홈폰 HD 미니'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KT 제공

12일 '중장년 채용한마당'

삼성·현대차 등 13개 그룹의 120개 협력사가 참가하는 '2013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0여 명의 경력직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jobfair.fki.re.kr)에서 원하는 중소기업에 사전 면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시리아 군사개입 반대' 문구가 쓰여진 포스터를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AP 뉴시스

시리아 공격 결정권 의회에 넘긴 오바마

9일 이후에나 승인… 최대 우방 영국의회는 반대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 작전은 의회가 오는 9일 개회해 무력 사용을 승인해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상황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눈을 감지도 않을 것"이라며 "심사숙고한 끝에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스스로 군사 작전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이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도 여름 휴회가 끝나고 이 문제를 심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 등 군사행동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이날 작전 개시 명령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오바마 행정부는 자체 시간표에 따라 제한적 군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사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들의 군사개입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엇갈린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최대 우방이었던 영국은 의회가 시리아 제재 동의안을 부결, 결국 시리아 사태에서 발을 뺐다. 반면 과거 이라크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프랑스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음메~ 가장 섹시한 젖소는?

metro Russia

심사위원 "크기보다 탄력"

최근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에서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젖소'를 뽑는 대회가 열려 화제다.

관능미를 뽐내기 위해 참가 등록을 마친 소는 86마리. 젖소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도 국제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유명 농부로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캐나다에서 초빙됐다.

심사위원 크리스토퍼 스피더는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젖소를 뽑는 기준은 튼튼한 다리와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젖"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젖소의 젖은 크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탄력 있고 아름다워야 하고 두 번째 기준인 다리는 튼튼하고 곧게 뻗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레나 보브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4시간만 노출돼도 사망 후쿠시마 원전 추가유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4곳에서 고방사선량이 검출, 오염수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오염수 저장탱크 3기와 배관 접합부 1곳 부근에서 시간당 70~1800밀리시버트(mSv)의 고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800mSv의 방사선량에 사람이 약 4시간 노출될 경우 사망이 거의 확실시된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근처 4곳의 우물 지하수에서 ℓ당 470베크렐(Bq)의 트리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측정했을 때보다 농도가 약 15배 상승한 것으로 문제의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에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엄홍길휴먼재단 관절염 무료치료 지원

연세사랑병원과 제대혈 줄기세포치료 후원협약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환자 대상 신청 접수 받아

노인건강 관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이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건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돼 신체 부위가 점차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고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무릎관절은 이런 변화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관절 중 하나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내 자리 잡고 있는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가 서로 맞닿음으로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수도 없고 자연 치유도 불가능하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다. 우선 인공관절 수술은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무릎관절 운동량 회복뿐 아니라 통증 경감 효과도 가져다준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으로 연골 재생이 그 핵심이다. 즉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주입해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듦으로써 다시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신생아의 골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5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게시창을 통해 신청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으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런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연세사랑병원과 카티스템 무료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지난 2008년 설립돼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히말라야 현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협약 역시 엄홍길휴먼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왼쪽)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엄홍길휴먼재단의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2년 엄홍길 대장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환자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고용곤 병원장, 엄홍길 대장이 무릎관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함께 청계산 등반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은 세포치료연구소를 운영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년 지역 의료봉사를 진행해 노인들의 무릎관절 건강을 살피고 있다. 10년째 전남 진도군에 나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연세사랑병원과의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가을 야외활동 '3대 감염병 주의보'

9월부터 11월까지는 쥐나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질환이 유행하는 시기로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가을철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병·신증후군출혈열·렙토스피라증의 감염을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털진드기 유충이 옮기는 쯔쯔가무시병은 유충이 번식하는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쯔쯔가무시병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약 90%가 9~11월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쥐 등 설치류의 뇨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는 신증후군출혈열과 계부 설치기 야생동물 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에 닿아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도 주로 9~11월에 60~80%가 발생한다.

이 감염병들은 모두 야외에서 활동할 때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진드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발열·오한·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서지원기자

<세뇨리타 소속사 아이돌 A 여가수 B>

카드결제 '먹통'에 사내연애 '들통'

연예가 소곤소곤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 A가 수년간이나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해왔다고 합니다. 열애 상대는 같은 소속사에 있는 한 살 아래의 여가수 B인데요. 주변에서 연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한 소속사라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둘러대 지금까지 열애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고 했나요? 두 사람 사이는 결국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함께 오전에 체크아웃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들통 났습니다. B가 프런트에 혼자 와서 A의 카드로 숙박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결제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A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네요.

▶김동호 조건 영화제작자에 시사대접

영화계의 큰어른으로 통하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더 테라 라이브의 이춘연 씨네2000 대표와 숨바꼭질의 김미희 스튜디오 드림캡처 대표, 감시자들의 이유진 영화사 집 대표 등 최근 흥행 성공의 기쁨을 맛본 중견 영화 제작자들을 한데 불러모아 근사한 저녁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한 영화인은 "절순의 연세에 단편영화 감독까지 도전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만 하다"며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지만 예전 주기 시절의 술 권하기 '신공'은 이전에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을 만취 상태로 만들어버리곤 하셨다"고 귀띔했습니다.

▶"인기여가수 D 해도해도 너무해"

작곡가로도 주가를 높이고 있는 남성 가수 C가 인기 여성 가수 D에 대해 거침없는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D의 앨범에 C가 곡을 주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는 C의 곡을 앨범 타이틀로 쓰겠다고 말했고, C는 기쁜 나머지 곡을 제공한 것은 물론 곡에 어울리는 의상, 안무 등 다양한 기획 아이디어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C의 곡은 빠지게 됐고, C가 건넨 안무와 의상 아이디어만 다른 작곡가의 곡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화가 난 C는 D에게 항의 전화를 했지만 D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연예계에 이처럼 D에게 이를 갈고 있는 동료 연예인이 C뿐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7화 글·그림 이기

리디북스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날씨

9/02 月 일출시각 06:03 일몰시각 19:0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o56.co.kr

지역	기온
서울	19/28
청주	18/29
대전	18/28
전주	19/28
광주	19/28
제주	23/27
강릉	17/26
울릉도	19/24
대구	19/30
포항	19/27
울산	19/28
부산	20/28

운동량 부족과 과다 섭취로 인한 복부 비만의 경우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성인병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복부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생체기상학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8		4		
9					4	5	6	2
							4	
			3	6	1			
	6							
2	4	3	7					1
		1		9			7	
	7					8		

					4	1		5
				1				2
	4			6	8	3		
4	8							9
	2						5	
7							6	8
		5	9	7			3	
6				3				
8		7	5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제공=보누스
일본 스도쿠 출판전문 (카이를 리오스 자료)

가을, 이 좋은 계절

함영선의 모놀로그

지나가는 소나기 빗방울 사이로 바람이 뺨에 닿는 걸 보니 이제 여름이 갔음을 느낀다. 여름의 끝이 오면 항상 어딘가 슬프다. 하물며 여름이 끝남과 더불어 연애가 끝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40대 중반인 대학교 남자 동창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이성 친구의 결혼식은 마치 형제 장가 보내는 것 같아 흐뭇하고 대견하다. 동창들 사이에서 그리 살가운 편이 아니었지만 마지막 타자라 친구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축하해주러 왔다. 신랑·신부가 둘 다 40대이고 양가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예식 분위기는 비장하고 감격에 겨웠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들은 연애는 해도 이젠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들 한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을 통해 결혼 생활의 피와 살을 알게 되고,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으니 조금 외롭더라도 덜 귀찮고 힘든 쪽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늘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찾아오는 '가을' 같은 시점들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한 번 정점을 찍고 이젠 완연한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이대로 자분히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 어쩌면 무모한 희망을 한번 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계절. 가을은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마음이 놀란 탓인지 이젠 마지 이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걸 놔버려야 할 것 같은 조급한 체념이 드는 잔인한 계절이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차라리 쉬울 것처럼.

대학 동창들과 가을의 쓸쓸함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전제로 치면 우리는 이제 딱 가을 속으로 들어갈 때. 동기의 마지막 결혼식 이후, 우리는 아마도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한동안 서로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의 가을. 불혹은커녕 이렇게나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가을은 너무나 좋은 계절이기에 잘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애인 있는 한직장 후배 짝사랑 당장 마음 접지 않으면 망신수

Twilight 남자 85년 5월 12일 오후/여자 87년 5월 22일 오후

Q 직장에서 친해진 여성을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애인이 있어서 저 혼자 속병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고요. 하지만 단번에 아니라면 깔끔하게 단념하고,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A 현실적으로 맺어지기 힘든 상대일지라도 눈에 들어오면 마음을 빼앗기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런 사랑은 독가 되면 약이 되기도 하고요. 단면을 떠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일말의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망신수가 있으며 여성과의 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직까지 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도 본인만의 착각일 수 있으니 남장 대할 부리는 무화뇌동하지 마십시오. 올 음력 8월까지 마음을 정리한 다음 음력 9월부터는 다른 곳에서 짝을 찾아보시고 직장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지방이식 받아도 될까요 사주학상 성형 권하기 어려워

룰루랄라룰라 여자 75년 4월 15일

Q 나이가 드니 얼굴에 살이 많이 빠져서 주석 연휴 때 지방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작용은 안 생길지 걱정됩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면 언제가 괜찮을지요. 월세 부담이 커서 10월 초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기려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A 남들은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될 팬일까 하고 월월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불운은 대부분 본인이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허욕 탓에 있습니다. 귀하는 외견이 부드럽고 보기에 좋아 미모로 칭찬받지만 안으로는 완두통이 있고 간과 비장이 약한 데다 치아도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사주학상 몸에 인위적으로 다른 뭘 칼을 넣거나 칼을 대는 수술을 권해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력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바꾸겠다면 메트로신문 '사주 속으로' 코너에 사주 상담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생년월일과 음력 양력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일 (음 7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고생 사서 하는 격이니 외출하지 마라. 60년생 돌 귀소. 자전 뼈는 후배가 있었다. 72년생 목돈이 굴러들어올 듯. 84년생 상사 코드에 잘 맞추는 것도 실력.

소 49년생 직원의 불화 잠잠해진다. 61년생 어렸사람의 일가 미흡한 실수는 묵인하라. 73년생 도장 찍는 일은 미루는 게 좋다. 85년생 마당 깨졌으니 잡음 발산하라.

호랑이 50년생 속근이 떠나 허전한 하루. 62년생 꼼꼼한 일 성사된다. 74년생 미래에 마주할 준비 게을리하지 마라. 86년생 작심한 일말은 사고 전환에 도움이 된다.

토끼 51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63년생 위기 넘기려면 변화무쌍한 처신 필요. 75년생 수입 늘고 지출도 늘어난다. 87년생 재미있는 일 덕분에 웃는 하루.

용 52년생 머리가 복잡할 땐 쉬는 게 상책. 64년생 오늘 참으면 내일이 행복하다. 76년생 부풀려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조심. 88년생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뱀 53년생 뜻대로 다 되면 인생은 재미없다. 65년생 예상 못 한 장애물에 진퇴양난. 77년생 매사 계산을 다하면 잃게도 있다. 89년생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말 42년생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라. 54년생 돈 문제에 애매한 태도는 오해를 산다. 66년생 웃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라. 78년생 자신했던 일이 꼬여 답답하다.

양 43년생 예상치 못한 용돈 생긴다. 55년생 변수 많으니 이는 길도 돌아서 가라. 67년생 멀었던 사람이 실망시킨다. 79년생 모임에 가면 별던 귀인과 마주친다.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이 피곤. 56년생 작은 것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68년생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마라. 80년생 직장에 웃음 바이러스 퍼진다.

닭 45년생 먼 거리 출행은 미루는 게 좋다. 57년생 전진을 위해 철보 후퇴가 필요한 날. 69년생 앞으론 남고 뒤론 밑지는 격이다. 81년생 변동이 많으니 한 우물 파라.

개 46년생 엉뚱한 일로 근심하지 마라. 58년생 등한하면 득보다 실. 70년생 망설이면이나 면상을 무시하지 마라. 82년생 부모에게 애교 떨면 뜻밖의 선물 생긴다.

돼지 47년생 긴장 풀면 사고 생긴다. 59년생 어우리 바빠도 잠시 한가한 시간 가져라. 71년생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불화 생긴다. 83년생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할 것.

star bag

'주군의 태양' OST로 음원 1위

가수 윤미래가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 OST로 연일 음원차트를 강타하고 있다.

그가 부른 '터치 러브'는 지난달 8일 발표된 이후 각종 음원차트 실시간 1위에 올랐고 1일 현재 멜론·엠넷·올레뮤직 등 9개 주요 음원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휩쓸었다. '터치 러브'는 피아노 선율에 두드러진 멜로디와 R&B 리듬이 조화를 이룬 발라드로 윤미래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인상적인 곡이다.

새 앨범 '스릴러' 화보 공개

남성 그룹 비투비가 9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공식 SNS에 타이틀곡 '스릴러'의 콘셉트 화보를 공개하고 한층 짙어진 남성미와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어냈다. 흑백톤의 단체 화보에서 7명의 멤버들은 단단한 복근을 비롯한 근육질 상체를 드러냈다. 비투비는 4일 음악 방송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응답하라 1994' 여고생 출연

신인가수 엔씨아가 케이블 채널 tvN '응답하라 1994'에 캐스팅됐다.

서태지와 아이들, 농구대잔치 등 1994년을 소재로 전국의 대학생이 하숙집에서 벌이는 에피소드를 다룬 이 드라마에서 엔씨아는 귀여운 여고생으로 출연해 풋풋한 매력을 선보인다. 10월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지난해 인기를 얻은 '응답하라 1997'의 후속작이다.

'아가씨와 —'로 뮤지컬 데뷔

배우 류수영이 뮤지컬에 데뷔한다.

그는 11월 BBC 씨어터에서 공연되는 '아가씨와 건달들'에 스카이 역으로 캐스팅됐다. 스카이는 내기에 지지 않기로 유명한 뉴욕의 사기꾼으로 류수영은 김다현·송원근과 이 역을 번갈아 연기한다. 스카이와 사랑에 빠지는 신앙심 깊은 선교사 사라 역에는 이하늬와 김지우가 더블 캐스팅됐다. 이외에 박준규·이율·구원영·신영숙 등이 출연한다.

영화 제작자는 대부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다. 부침 심한 한국 영화계에선 더욱 그렇다. 전국 관객 500만 고지를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숨바꼭질'의 김미희(49) 스튜디오 드림캡쳐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주유소 습격사건' '신라의 달밤' '선물' '황산벌' 등 한때 손대는 작품들마다 돈을 쓸어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 선보인 '페이스 메이커'의 처참한 흥행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와 씨름하는 생활을 1년 넘게 견뎌내야만 했다. 지난주 서울 신문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면 끼지고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롤러코스터>

"'롤코'인생…영화·사람 빼면 시체"

흥행돌풍 '숨바꼭질' 영화제작자 김미희 대표

손현주 캐스팅 수차례 고비…현장에선 허 감독 '엄마'
'페이스' 참패 빚더미…손해 안보자고 도전한게 대박

▶시나리오 보고 필 꽂혀

몇몇 단편영화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미완의 대기에 불과했던 허정 감독으로부터 확실한 가능성을 찾아낸 건 '숨바꼭질'의 초고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였다. 귀신 없이도 일상을 배경으로 공포와 서스펜스를 어필해내는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페이스…'로 까먹은 돈을 다시 벌어들일 것이란 헛된(?) 희망은 품지 않았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좋은 감독을 발굴해 손해나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컸다.

문제는 역시나 캐스팅이었다. 원래는 주인공 성수의 연령대가 30대 초반이었지만, 데뷔하는 감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40대 베테랑 배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나리오를 수정했다.

▶손현주 날카로운 구석 많아

그래서 찾아낸 연기자가 바로 손현주였으나, 캐스팅 확정까지 수차례 고비를 겪어야만 했다.

우선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주연을 맡은 적이 없었던 탓에 관객 동원 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다. 또 손현주와 만나는 과정 자체도 힘들었다.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출연작을 고르는 눈만큼은 깐깐하고 예민하기로 소문난 성격인 데다 드라마 '추적자'의 성공으로 여기저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손현주의 중앙대 연극영화과 후배인 '페이스 메이커'의 김달중 감독이 어렵게 술자리를 만들었고, 시나리오를 좋게 본 손현주로부터 마침내 승낙을 얻어냈다. "직접 겪은 손현주씨는 TV에서 보던 것처럼 마냥 편하고 수더분한 배우가 아니더군요. 날카로운 구석이 의외로 많아 은근히 긴장했죠. (웃음) 그럼에도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인품의 소유자란 것은 확실해요. 현장 경험 없는 신인 감독을 대신해 몸소 막내 스태프까지 챙기는 와중에도 항상 촬영 시작 1시간 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먼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허 감독을 비롯해 투자배급사인 뉴(NEW)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의 공이 크지만, 만약 현주씨가 없었다면 숨바꼭질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작자의 역할과 의무

현장에선 허 감독의 엄마를 자처했다. 고민에 빠지면 식음을 전폐하기 일쑤인 허 감독의 끼니를 일일이 챙기고 틈날 때마다 휴식을 권했다.

결국은 "제작진인 영화 촬영에서 선장이나 다름없는 감독의 건강이 망가지면 작품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김 대표는 "술 한 잔 먹지 못하는 체질에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허 감독이 행여라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오버 페이스할까봐 고3 수험생 엄마처럼 사사건건 간섭했다"며 "감독을 다그칠 때는 다그치더라도 품어줄 때는 품어주는 것이 바로 제작자의 할 일이자 선택의 의무"라고 귀띔했다.

▶한때 '미다스의 손' 불려

20년 전 한국 영화의 명가 시네마서비스에서 강우석 감독으로부터 영화 만들기의 전 공정을 처음 배웠다.

이후 좋은 영화란 이름의 제작사를 차려 독립했고 씨어더스FNH의 공동 대표를 역임하면서 한때 '미다스의 손'이란 표현까지 누렸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사람들만 있다.

누가 "그 돈 벌어 다 어디에 감춰뒀느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을까요"라며 그저 웃을 뿐이다. 부와 명예보다는 영화와 사람을 좇이 앞뒤 재지 않고 달려온 인생에 후회는 없어서다. "솔직히 '페이스…'가 망하고 나선 잠깐이나마 사람들과 영화가 싫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게 영화와 사람을 빼면 뭐가 있을까 싶더군요.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조심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면 영화 제작자란 직업이 아주 나쁘지는 않답니다."

사진/비투화커뮤드 제이원 디자인/김아람

결혼 느낌 아는 '혼수준비 핫플레이스'

쫓기듯 쇼핑 대신 신혼집 온듯 최신가전 체험하고 허니문·웨딩 박람회도 한자리서 해결

LG베스트샵 강남본점 박민우 지점장 인터뷰

서울 청담동 학동사거리에 위치한 LG베스트샵 강남본점은 전자제품의 최신 트렌드와 최첨단 제품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어 국내 전자매장의 랜드마크 이자 'LG전자의 놀이터'라 불린다. 특히 혼수 전문매장으로 TV·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인 가을을 맞아 혼수준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LG베스트샵 강남본점의 박민우(39·사진) 지점장을 만났다.

LG베스트샵 강남본점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명으로 갤러리를 연상케한다. 4층에 자리한 빌트인 가전 매장은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콘셉트로 꾸며져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강남본점만의 매력을 꼽는다면.

매장이 고급스럽고 쇼핑하기에 편안하다. 많은 고객들이 다른 매장에 가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드는데, 우리 매장에서는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또 1층부터 5층까지 전시 공간뿐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다양한 문화 강좌가 진행되는 VIP라운지까지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물론 신혼살림에 필요한 최신 제품을 다른 매장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층에 특별한 공간이 있던데.

웨딩박스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웨딩홀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별점을 볼 수 있다. 매달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의 '웨딩특집'도 비치돼 있다.

-최신 혼수 트렌드는.

경기 불황 때문인지 '실속'이 대세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가의 제품을 많이 찾았다면, 최근에는 실용성을 위주로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는 경향이 두렷하다.

-새롭게 뜨는 혼수가전은 어떤 게 있나.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청구컴등이 있다. 3.5kg 용량의 세컨드 세탁기 '꼬망스'도 인기다. 그날 쓴 수건이나 티셔츠 등 5~6가지 세탁물을 간편하게 빨 수 있고, 세탁 시간도 15분 정도라 비용 대비 경제적이다. TV에 꽂아 쓰는 고성능 스피커 '사운드바'도 많이 찾는다. 최신 제품엔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돼 있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비 부부를 위한 9월 프로모션은.

상담만 받아도 모스카토 와인을 증정한다. 상품을 계약하면 립스어본/가방과 구매 금액별로 LG전자의 다양한 사은품을 선물로 준다.

-웨딩 박람회도 개최한다던데.

7·8일 여행사와 함께 신혼여행지를 소개하는 '허니문 박람회'를, 마지막 주 주말에는 '웨딩 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웨딩드레스부터 스튜디오·한복·허니문까지 소위 강남에서 뜨고 있는 인기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알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틀간 평균 250~300쌍이 다녀갈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다.

-혼수 준비 중인 예비 부부들에게 한마디.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을 위주로 필수 구입 품목을 정하고, 소형 가전은 선물로 받는 것이 좋다. 또 요즘은 신제품 주기가 4~6개월로 빨라졌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철이 지난 제품을 고르면 기능이 떨어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혼수 구입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제품을 골라야 오랫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추석선물은 '착한 한돈' 맛있게 부담없게 드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 아이파크 쇼핑몰 광장에서 열린 '한돈 드림 캠페인'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모 위원장(뒷줄 가운데)과 한돈 홍보대사 강소원(아래)양이 국산 돼지고기 한돈으로 구성한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문의 dream.han-don.com·1577-8345

우윳값 올랐어도 카페라테값 그대로

폴바셋 인상계획 연기 등 커피전문점들 가격 유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우유의 흰우윳값이 ℓ당 220원 올랐다. 그렇다면 우유를 사용해 만드는 카페라테 같은 커피값도 비싸질까.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당분간 커피값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탐앤탐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등은 우윳값 인상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로부터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파스쿠찌 관계자는 "커피 가격은 우윳값뿐만 아니라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다양하게 반영돼 결정되는데 내부 회의를 통해 소비자판매가는 고정하고 인상분을 끌어안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1일부터 우유와 원두 등 원부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폴바셋은 인상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당초 폴바셋은 카페라테 가격을 700원 올린 5200원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연효은기자 hyeun@

슈즈숍 레스모아 20% 할인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가 춘천매장 확장 오픈을 기념해 전 품목 2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5만원 이상 구매 시 티셔츠,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HTML백을 선착순으로 선물한다.

춘천의 명동인 조양동에 위치한 레스모아 춘천점은 기존 1층만 운영하던 매장을 2층까지 확장 운영한다. 1층은 스프리스·클락스 등 스니커즈를 포함한 캐주얼 제품을, 2층은 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배스킨라빈스 '9월의 맛'

배스킨라빈스가 9월의 맛 아이스크림으로 '나의 그리스식 요거트'를 선보였다.

신제품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그리스 전통 요거트인 허니 그릭 요거트와 프레인 그릭 요거트가 어우러져 달콤한 꿀과 함께 부드러운 요거트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안데스 고산지대의 슈퍼 곡물 퀴노아를 요거트로 코팅해 넣어 바삭한 맛까지 더했다. 싱글 레귤러 기준 2800원.

서울우유 창작대잔치 성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제16회 어린이 창작대잔치'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총 450여 점의 응모 작품 가운데 심미성·조형성·창작성 등의 심사 기준으로 개인과 단체 부문에 걸쳐 총 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는 경북 구미 도봉초등학교의 '우리학교 우유'와 '우리학교 홍보탑'과 전남 광양 용강초등학교의 '심장이 울리는 한국의 북' 등이 선정됐다. 자세한 수상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홈페이지(www.seoulmil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참 뜬 오니기리와이규동

삼각김밥·규동 전문점 오니기리와이규동이 미국의 노동절을 기념하는 '2013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노동절 피크닉'을 후원하고 나섰다.

암참 회원과 그들의 동료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오니기리와이규동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3 암참 노동절 피크닉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사리 경정공원 내 비나진다축구장에서 열린다.

'전격Z작전'처럼 7년후 무인차 시대

자선 바꾸고 충돌 피하고 운전자 없이도 자동 제어
닛산 2020년 상용화 박차 구글 '무인택시회사' 계획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원조 미드 '전격Z작전'에 등장한 무인 자동차 '키트'가 이르면 7년 뒤 상용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은 아예 이를 활용한 택시 사업까지 구상 중이다. 이들 기업이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최근 닛산은 2020년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무인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닛산은 수년 전부터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 카네기멜론, 도쿄대 등 세계 유명 대학의 연구팀과 협력해 무인 자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도로 환경을 실제처럼 재구성한 일본의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께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닛산 무인차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차선을 유지 혹은 변경한다. 아울러 사람이나 다른 차와 충돌을 회피하는 첨단 시스템이 추가된다.

앞서 무인 자동차 주행에 성공한 구글은 승객이 원하는 때에 무인 택시를 탈 수 있는 온 디맨드 방식의 택시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택시 회사에 접속해 탑승 장소와 시간 등을 미리 정하면 택시를 탈 수 있다.

구글은 무인차 제조를 위해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 독일의 콘티넨털AG 등 자동차 부품회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가격이다. 무인차에는 첨단 통신장비와 컴퓨터 장치가 들어간다. 게다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돼 초기에는 제품값이 턱없이 비쌀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무인차 가격은 1억원을 상회하지만 업계들은 이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진보당 사태와 민주당의 선택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포착돼 온 국민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놀랍다. 국가정보원은 지난주 이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지하조직의 이름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이며, 이 의원이 총책이고 나머지 9명은 핵심 조직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RO 조직원 130여 명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회합을 갖고 ▲유사시에 유류(油類)·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체제를 전복하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직원들은 비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적기가(赤旗歌) 혁명동지가 등 북한 가요를 합창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입증할 5건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진보당의 종북 좌파 성향은 그동안 수없이 노출됐지만 이번엔 조직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충격적이다. 이번 내란음모 수사는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빚어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태의 비중이나 내용으로 보아 국정원은 철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찰은 자칫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려 변질되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난 총선 때 야권 연대를 위해 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진보당 의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야권 연대 전략상 민주당과 진보당이 전략 공천을 했던 야권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또 이석기 의원의 경우도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금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중립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가 안보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때만 되면 덧씌워지는 색깔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포토프리즘 | 여름을 건너 가을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아 시원한 바람이 연신 불던 30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여학생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영국 록그룹 비틀스의 멤버들이 런던 애비 로드(Abbey Road)의 EMI스튜디오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진을 사용한 앨범 '애비 로드'의 커버를 보는 듯하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문제는 '水반떼' '水타페'

뉴스룸에서
박성훈
<경제산업부 차장>

'파업하라니까 무슨 협상? 이자의 차값에 반영될 것이고 협력 업체에 단가 후려칠 테니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되돌아오는 임금 인상안. 이제 익숙하다.(dong****)'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임금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2·3일 각각 8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현대차 성토에 나섰다. 이들이 화를 낸 것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파업인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합작한 그들의 제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지금 파업을 한다면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31일 현대차는 준중형 세단 '아반떼' 엔진룸 누수 문제와 관련해 향후 부품 부식 등이 발생하면 폐차 시까지 무상 보증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엔진룸에 물이 새면 최악의 경우 주행 중 엔진이 멈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한발 앞서 중형 SUV '싼타페'에도 트렁크 부위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는 1년 만에 공식 사과했고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두 차종을 '수반떼' '수타페'로 비하해 부르고 있다.

"현대차 아끼는 소비자 애정도 줄줄 샌다면"

아반떼와 싼타페는 현대차의 볼륨 모델이다. 지금 이후에 나오는 이들 모델에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미 문제가 있는 차를 수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가하게 임금 협상이나 파업이나 하면서 이미 뒤통수를 맞은 소비자를 또 한 번 골탕먹이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사태와 파업은 자칫 향후 10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지금은 아반떼와 싼타페에 물이 새지만 머지않아 현대차를 아끼는 소비자의 애정이 조금씩 샐 것이다.

8월 현재 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은 2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00만~3000만원대 수입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간도 땅 어느 마을의 밤하늘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명동촌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윤동주 생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의 시비가 서 있는 용정중학교도 제1, 제2 하는 식으로 같은 이름이 다섯 개나 된다. 그 바람에 자꾸 가시는 약간의 혼란을 겪고 학교 문이 닫히기 전 그곳을 겨우 찾은 뒤였다.

불빛 한 점 없는 한적한 비포장 시골길을 가던 차가 얼른 멈춰 약간 후진한다. 사람 키보단 훨씬 큰 돌이 의젓하게 서 있다. 휴대전화의 조명을 비추니 띄엄띄엄 '윤동주 생가'라는 글이 눈에 들어온다. 얼핏, 난데없이 무슨 광개토왕비를 마주친 것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석문(石文)을 해독하는 고고학자의 흥분을 미처 마치고 문으로 들어선 시각, 사방은 그저 어둡다가 아니라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 꽉 채우고 있었다.

관리하는 분이 생가를 따라 늘어선 철사조롱 조명등을 켠다. 하지만 어둠을 거둬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더듬더듬 길을 내려가자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아쉽기 짝이 없다. 사진에서 봤던 담백한 기와집 형태만 간신히 보일 뿐, 내부에는 전구 하나 켜 있지 않다. 허탕을 친 셈이었다. 그래도 현장에 왔다는 기분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다소 낙담한 채 돌아서 나오는 찰나, 무심코 머리를 들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거기 윤동주가 있지 않은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별 하나에 동경(憧憬)과/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윤동주가 봤던 그 별들이다. 은하수가 소리 없이 넘실대고 있었다. 시인이 오래전 행복한 눈으로 봤던 간도 땅 바로 그 밤하늘이었다. 동쪽을 밝힌다는 뜻으로 지어진 명동(明東)촌의 밤은 어둠 속에서 도리어 빛나고 있었다. 예기치 못했던 축복을 누린 감격이 온몸에 전율처럼 번진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 그의 '서시' 마무리와 겹쳐 마음에 밀려온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런 하늘을 잃은 도시는 인조 조명으로 자신은 밝히지만 정작은 별을 잃고 있다. 별을 보고 길을 찾던 시대는 행복하다던 누군가의 말은 여전히 옳다. 거기에는 마음의 깊이가 스며있다. 그런 시절이 애절하도록 그립다.

박시온 같은 '굿 닥터'

기자수첩
탁진형
<연예스포츠부 기자>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열이 있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와서 하소연을 했다. 의사는 이런저런 검사를 권했고 한동안 결과를 기다리느라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애가 탔다는 얘기였다.

최근 병원들 사이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권하는 상술이 판치고 있다고 하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 병원엔 환자가 곧 돈인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다.

그러던 차에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2 '굿 닥터'를 봤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젊은 소아외과 의사들을 보다 보니 씁쓸했던 마음이 금세 훈훈해졌다.

자폐 장애를 딛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다해 치료하는 박시온(주원)이 있었고, 소송이 두려워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우의 수술을 거부하는 외과과장 고충만(조희봉)에게 "책임은 나중에 지겠다"며 첫 수술을 집도한 차윤서(문채원)와 "환자 가려서 수술하는 게 의사가 할 짓입니까"라고 항변하는 김도한(주상욱)이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도 좋은 의사들이 많다. 그러나 의사가 시대를 관통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그들의 직업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돈과 권력 등 그 어떤 외부의 힘보다 우선시한다고 믿어서다. 이것이 상술이 판치는 우리 사회에 '굿 닥터'가 던지는 메시지다.

고충만 같은 의사보다는 자폐가 있더라도 본분을 지키는 박시온 같은 의사에게 더 신뢰가 가는 이유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최현(오른쪽)이 1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9회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리고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추신수> <최현>

형은 데뷔 첫 90득점… 동생은 대타 역전포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90득점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장해 4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지난해 클리블랜드에서 한 시즌 최다 득점(88개)을 올렸던 그는 1년 만에 개인 기록을 경신했다. 올 시즌 한 달 평균 17.6득점을 얻고 있어 100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후 브랜든 필립스의 3루타 때 홈으로 들어왔고,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때린 뒤 필립스의 2루타와 상대 투수의 보크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네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는 타율을 0.281로 높였다.

신시내티는 추신수의 활약에 힘입어 8-3으로 승리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선수 최현(25)은 이날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5로 뒤진 9회초 대타로 출전해 역전 2점 홈런을 날렸다. 최현은 올 시즌 76경기에 나와 타율 0.257, 7홈런 19타점 21득점으로 2010년 데뷔 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유럽파 "골이 고프다"

손흥민 풀타임 활약 무득점
구자철 공격포인트 못올려
홍명보호 승선 앞두고 '침묵'

바이엘 레버쿠젠의 손흥민(왼쪽)이 1일 샬케04와의 경기에서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우치다 아쓰토(오른쪽)와 볼을 다투고 있다 /AP 뉴시스

유럽파 태극전사들이 홍명보호 공격중 재소 특명을 받았지만 소집 전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골맛을 보는 데에는 실패했다.

홍명보 감독과 처음 인연을 맺고 6일 아이티전과 10일 크로아티아전에 나설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은 귀국 전인 1일(한국시간) 독일 벨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샬케04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2013~2014 정규리그 4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슈테판 키슬링, 시드니 샘과 공격 삼각 편대를 구축한 손흥민은 풀타임 활약하며 리그 2호골을 노렸지만 팀의 0-2 패배를 구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횡두 패스와 크로스로 여러 차례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고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골도 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볼프스부르크의 구자철은 지난달 31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86분 활약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아 상대 공격을 저지하면서도 과감한 오른쪽 돌파로 공격에 적극 가담하며 대표팀 새도 스트라이커로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쌓지는 못했다.

한편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벤의 박지성은 캄뷔르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70분간 활약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0-0으로 경기를 마쳤다.

/유순호기자

'유희관 완벽투' 두산, 삼성꺾고 3연승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연방에서 꺾고 3연승 가도를 달렸다. 두산은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프로야구 세븐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7⅓이닝 동안 5안타와 사사구 셋을 내주고 삼진 2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막은 유희관의 활약으로 삼성을 4-0으로 제압했다. 특히 이날 시즌 누적 관중 101만7667명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LG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를 맞아 정성훈의 결승 내야안타로 3-2 역전승을 거뒀다. LG는 62승 43패로 이날 두산에 패한 선두 삼성(61승2무42패)과 승차를 없애고 승률에서 0.002가 뒤져 2위 자리를 유지했다.

광주구장에서는 NC가 홈팀 KIA를 12-3으로 대파했다. NC는 창단 후 처음으로 선발 타자 전원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홈런 세 방을 포함한 16안타로 KIA 마운드를 흔들었다. 3연패에 빠진 7위 KIA는 포스트시즌 진출은커녕 1.5경기 차로 쫓아온 8위 NC와도 자리를 맞바꿀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

넥센은 대전 원정에서 한화를 7-3으로 꺾었다. 홈런 선두 박병호는 시즌 26호 홈런을 터트려 2위 최정(SK)·최형우(삼성)와의 격차를 두 개로 벌렸다. /유선지기자

프로야구 전적 1일

■ 잠실

팀				계
삼성	000	000	000	0
두산	210	100	00X	4

[illegible]

■ 대전

팀				계
넥센	301	000	300	7
한화	210	000	000	3

[illegible]

■ 광주

팀				계
NC	240	303	000	12
KIA	010	200	000	3

[illegible]

■ 사직

팀				계
LG	000	100	110	3
롯데	002	000	000	2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일

홈			원정
수원	0	0	전남
포항	1	2	부산
대구	0	1	서울
경남	0	1	성남
전북	2	0	인천
강원	1	2	울산
제주	2	1	대전

[illegible]

손연재가 1일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5위 손연재 "후회는 없었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종목별 결선에 진출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9·연세대·사진)가 내년 시즌 선전을 자신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013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를 5위로 마치고 1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손연재는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밝혔다.

그는 개인 종합 결선에서 4종목 합계 70.332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개인 종합 결선에서 처음으로 톱10 안에 드는 개인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선수권 첫 메달 획득에는 실패한 손연재는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 내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대회 마지막 날 제일 상태가 나빠 연습만큼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밑에서부터 시작했기에 지금까지는 올라가는 게 수월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 생각한다"며 "아시안게임 등 내년 시즌도 있기 때문에 더 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연재는 10월 인천에서 열릴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며 2학기 학업도 병행한다. /유순호기자

벤 헨더슨 4차방어 실패

'갑지 파이터' 벤 헨더슨(29·사진)이 UFC 라이트급 4차 방어에 실패했다.

헨더슨은 1일(한국시각) 미국 밀워키 BMO 해리스 브래들리센터에서 열린 UFC 164 의 메인 이벤트에서 페페 경험을 안겨준 앤서니 페티스(26)를 상대로 1라운드 4분37초 만에 서브미션패했다.

헨더슨은 2010년 12월 페티스와 WEC의 마지막 대회에서 맞붙어 5라운드에서 종반의 '벽 차는 킥'을 허용하며 판정패한 경험이 있다.

/김[illegible]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Can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eace Park? 생활 정보 묻고 답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극장은 어느 쪽인가요?
다음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대학교까지 얼마나 먼가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하나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ich way is the movie theater?
Turn right at the next corner.
How far is it to the universit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Should I go this way or that w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A Should I go 이 길, 아니면 저 길?
B Keep going this way for 3 blocks.

정답 this way or that way

▶ 패턴 훈련

1 [Turn right /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You can't miss it.

2 How far is it to [the university / your hous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특정 명사를 지칭하는 the

▶ the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아는 것을 말할 때	the window, the living room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	the sun, the moon, the world
여러 개의 주상으로 만들어진 지명	the USA, the Philippines
기계나 악기	the piano, the violin, the radio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확인.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m in the kitchen, mom! 엄마, 저 부엌에 있어요.
2 Sally's going to the States next week.
셀리는 다음 주에 미국에 가요.
3 There are many jobs in the world.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Passengers on the aircraft are asked to secure ______ belongings during takeoff and landing.
(A) they (B) their
(C) them (D) themselves

02. Employees currently working in Ridge Manufacturing's branch offices will move into the new headquarters ______ the building is finished.
(A) once (B) even
(C) besides (D) moreover

01 비행기의 탑승객들은 이착륙 동안 자신의 소지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요청 받는다.
해설 명사 belongings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대명사 소유격인 (B) their를 써야 한다.
어휘 passenger 승객 aircraft 비행기 secure 단단히 고정시키다, 안전하게 지키다 takeoff 이륙 landing 착륙
정답 (B) their

02 현재 릿지 제조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단 건물이 완공되면 새로운 본사로 이사할 것이다.
해설 완전한 문장 구성에 필요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정답은 (A) once(일단 ~하면)이다.
어휘 currently 현재 branch 지사 headquarters 본사
정답 (A) onc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자음 발음 연습

[b] vs [v]

[b]는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ㅂ처럼 내는 소리, [v]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떼는 소리입니다.

best 최고의 — vest 조끼 bont — vote 투표
berry 딸기류 열매 — very 매우 boys 소년들 — voice 목소리

Ex. The visitor never came back to my village.
그 방문객은 우리 마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p] vs [f]

[p]는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ㅍ처럼 내는 소리이며, [f]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붙이고 바람을 내보내는 소리입니다.

pull 당기다 — full 가득 찬 pear 배 — fair 공정한
leap 뛰다 — leaf 나뭇잎 Perry 제리(남자 이름) — ferry 연락선

Ex. I prefer to go fishing with my father at the pond.